

남원시 “공중보건의 공백 해소 총력”

의대생 현역 군입대 늘며 전년보다 2명 줄어 1명만 잔류
시니어 의사 확보 추진...만성질환자 원격 협진 등 운영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 수가 급감하면서 지방 중소도시들의 지역 의료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다각적 대응에 나섰다.

남원시는 2025년도 의과 공보의가 전년도 대비 2명이 감소한 상태라며 내년에는 단 1명만이 잔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근 의과대학 재학생 중에서는 여학생의 비율 증가와 더불어 현역 군입대자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공중보건의 자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권고안’에 따라 도서지역과 보건의료원 응급실 등에 인력이 우선 배치되면서 내륙 중소도시의 보건지

소는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 17일 남원의료원과 의료인력 협약을 체결, 진료의사 2명을 지원받아 보건지소 진료지원에 협조키로 했으며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관리의사 2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결정했고 보건복지부 시니어 의사지원센터의 의료인력지원사업에 공모해 시니어의사를 확보,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진료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2025년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관내 보건지소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공중보건의 4명이 각 권역을 순회 진료하는 체계로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지소당 최소 주 2일의 진료권을 확보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협진사업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시는 원격협진사업을 활용해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의 연속성과 질을 높이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공중보건의 감소는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지역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북자치도와의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식품산업연구원, 관광상품 고도화

다음달 8일까지 식품 제조업·6차산업 인종기업 모집

고창군 출여 연구기관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고창 특화자원 관광상품 고도화 지원사업(2차년도)’의 수혜기업을 오는 5월 8일까지 모집한다.

전북자치도와 고창군이 지원하는 이 사업은 관내 식품제조업체 및 6차산업 인종기업을 대상으로 총 2억28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지원 분야는 ▲기술지도(5건) ▲시험분석(5건) ▲효능검증(1건) ▲인증 및 지식재산권 확보(3건) ▲시제품 제작(5건) ▲온라인 마케팅(5건) ▲디자인 개선(9건) ▲패키지 지원(2건) 등 8개 분야, 35개 프로그램이다.

수혜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맞춤형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고창푸드’ 공동브랜드 활용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병행해 고창식품 및 관광산업의 고도화와 고창 식품의 해외수출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공고는 고창군청, 전북테크노파크,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박생기 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은 “사업 1차 연도였던 지난해에는 14개소 기업이 수혜를 받아 40억원의 매출 성과를 이룬 바 있다”며 “1차연도 성과를 기반으로 2차연도에는 식품·관광 고도화를 목표로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웰파크호텔 개관

지난 19일 고창군 석정온천 관광지에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프리미엄 복합관광시설인 ‘고창 웰파크호텔’의 개관식이 열렸다. 고창웰파크호텔은 서울시니어스타워(주)고창웰파크시티가 조성한 관광숙박시설로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에 91실의 객실과 함께 컨벤션홀, 웨딩홀, 레스토랑, 카페, 세미나실, 스위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 힐링 공간이다.

〈고창군 제공〉

‘동학농민혁명 대상’에 소설가 이광재

정읍시 혁명정신선양위 선정...작품 통해 혁명 대중화 선도 업적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생생한 문학으로 되살린 소설가 이광재 씨가 전북 정읍시가 시상하는 ‘제15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로 확정됐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위원회를 열어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로 이광재 작가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시군구·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개인 8명, 단체 3곳을 접수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연구자, 유족회, 관련 단체, 시의회,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자들의 공적과 증빙자료를 심

사했다.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을 문학적으로 재조명하고 세대를 아우르며 혁명의 정신을 알리는 데 업적을 세운 이광재 작가를 수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 작가는 1989년 문예지 녹두꽃2에 단편소설 ‘아버지와 딸’을 발표했고 1991년 같은 제목의 장작집을 발간했다.

이후에도 ‘사랑하면 할수록’, ‘태풍의 눈’, ‘내 가슴의 정보리밭’, ‘폭풍이 지나간 자리’, ‘봉준이, 온다’, ‘나라 없는 나라’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대중화를 선도했다.



소설가 이광재 씨

최근에는 전봉준, 김덕명, 김개남, 송희옥 등 동학의 주역들이 청년 시절을 그린 소설 ‘청년 녹두’를 출간하기도 했다.

시상식은 오는 5월10일 제58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시상금 2000만원이 전달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광재 작가는 젊은 청년들에게도 동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이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 대중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인재 발굴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민에 챗GPT 프롬프트 활용 특강

26·27일 SW미래채움전북센터서 세미나...인공지능 활용 실전

남원시가 ‘SW미래채움 지역특화사업’의 하나로 인공지능 기술을 실무에 활용하려는 시민들을 위해 ‘SW/ICT 특강 세미나’를 연다.

남원시는 오는 26일과 27일 SW미래채움전북센터에서 ‘챗 GPT 프롬프트 활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챗GPT)의 프롬프트 활용법을 중심으로 한 실전 특강이다.

강의와 실습이 병행되는 방식이며 기초부터 고급 수준까지 단계별로 구성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활용 경험이 없는 시민들도 쉽게 이해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참여 대상은 만 16세 이상 전북도민 및 지리산권 거주 시민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미래 기술을 보다 쉽게 배우고 일상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SW/ICT 특강은 분기별로 진행될 예정으로 생성형 및 협업형 인공지능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단계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